

# 여성작가가 만드는 여성 이미지 왜곡

## 베스트셀러 지향의 책들 대부분 반여성적 이미지

노혜경

시인 · 부산대 강사

한때 아버지 신드롬이 나라를 휩쓸더니 지금은 어머니 신드롬이 번지고 있다. 어머니가 강하면 아버지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고개 숙인 아버지'와 '강한 어머니'라는 화두는 언뜻 보기에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텔레비전 매체 및 각종 잡지에서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아버지 기 펴세요, 엄마가 있잖아요" 시리즈들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 명백하다. 즉,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나라를 이끌어 나갈 남자들이 기죽으면 안 되니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굶은 일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아빠 시키지 말고 엄마가 해서 아빠 기를 살리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화되기만 하는 엄청 '강한 어머니' 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기타 적응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보통 어머니들을 대거 수모의 현장으로 내몬다.

### 내내 이미지 조작으로 만든 '아버지' 신드롬

대중매체의 속성이야 원래 가벼운 것이니까, 또 가장 보수적이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자. 거시적으로 보아 한 시대의 의식을 그 중 잘 반영하는 것이 출판이라는 말이 맞다면, 우리의 출판현실은 여성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버지》와 《선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책은 고개숙인 아버지와 강한 어머니의 절묘한 조합을 주장하며 남성의 사회적 책임을 비껴가는 데 일조한, 아니 앞장서서 책임회피를 토로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게 된 원인이 저자가 은근히 주장하듯 아내의 탓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또 아버지가 가정으로부터 비껴나게 된 원인이 가족의 탓인가. 그가 '내내무섭증'을 앓고 있다 해도 그는 그 아내와 강제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병을 앓는 아버지와 남편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가 가정을 곁들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하는데 독자가 깜짝 잊게 되는 사실은, 이 사람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족에게 아버지가 처해 있는 사실을 알려준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을 핑계로 평생 해 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던 일, 아내 이외의 여자와 외도하는 일을 포함한 갖은 응석을

어떻게 보면 여성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왜곡된 여성 이미지는 《아버지》나 《선택》이 초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여성들에게 입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서판매순위 50위 가운데 여성저자의 책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부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회피하여 고통 없이 자살로 마감한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가 진정 우리 시대 아버지의 자화상이라면, 이런 아버지가 가족에게서 도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 출판계를 위시한 사회 각 분야가 이 소설에 보여준 반응은 '고개숙인 아버지'에게 힘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평생을 티 하나 없이 살아왔고 가정경제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이끌어온 아내, 외도하는 남편에게 화도 내어서는 안 되고 그저 자신이 모든 나쁜 일의 원인인 듯 한 없이 착하기만 해야 한다.

아버지 신드롬이란 결국 아내의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성취되는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인 것이다. 《선택》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기를 할 수 있다. 가정-아내-어머니로 이어지는 신화화의 이면에는, 사회의 모든 악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어머니/아내/여자에게 돌리고 싶은 미숙한 심리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여성작가가 썼고, 따라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되는 글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는 어떨까. 통념적으로는 여성작가가 썼을 경우 제대로 된 여성 이미지가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쉽지만, 남성담론의 지배를 통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조작당한 채 성장한 여성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대중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런 행복은 찾아오기 어렵다. 더구나 베스트셀러를 지향하고 출판되는 작품들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미 반여성적인 여성 이미지



한 시대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출판현실에 여성의 자리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로 물들어 있기가 쉽다.

### 여성주인공 설정은 통속적

첫번째 이유는 주인공 설정의 통속성이고, 두번째는 출판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대개 남성들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여성 이미지의 왜곡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미 유수한 문학지들에서 비판받은 바 있는 최영미 현상 같은 것이고,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신경숙이나 은희경의 소설 같은 것이다.

신경숙의 경우 그의 출세작인 〈품금이 있던 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에어로빅 강사가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기로 해 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겪는 마음의 갈등이 줄거리이다. 이 여성 주인공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던 일과, 그때 어머니의 처신을 회상하면서 남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이 소설 어느 곳에도 가정을 유기하고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자인가. 사랑은 하되 책임은 없어도 되다니. 이 조야한 전근대성이 그의 세련된 문체에 실릴 때, 소설이 정말로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될 수 있다고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일까.

은희경의 경우는 꼭 반대의 입장에서 위험하다. 특히 금년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내의 상자》를 보자. 불임녀의 이상심리와 그를 지켜보는 남편의 폐쇄된 정서를 그려 현대인들의 황폐한 내면을 드러냈다고 극찬을 받으며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상의 〈날

개〉를 능가했다고까지 상찬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읽으며 느끼게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랑 따위는 앓겠다고 다짐하는 미숙한 한 여자의 패배주의적 사생활일 뿐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현대인의 내면이라고 비평가들은 생각하는 것일까. 어쩌면 여자의 입으로 여자를 거둬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언술이 남성들에게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성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왜곡된 여성 이미지는 《아버지》나 《선택》이 초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여성들에게 입히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여성이 출판계에서 아직도 미미한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 도서판매순위 50위 가운데 여성이 저자인 책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그나마 여성 저자의 대부분은 연예인이나 기타 텔레비전 출연빈도가 높은 여성들이기 쉽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평가들의 집중지원을 받고 출판사의 대대적 광고에 힘입은 여성작가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창출되는 여성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짧은 지면에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여하튼 이러한 여성작가들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작가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의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선택되어 출판되는 작품들 속에서뿐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의 원리 자체에 의해서도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